

보수통합 4·15 총선 주인공 결정 돼

보수통합신당, 중도층 사로잡으면 파괴력 커

중도층은 선거 때마다 전략투표 해 와

4·15 총선을 65일 앞둔 상황에서 각 정치세력 간 이합집산이 국적으로 전개되면서 '총선 구도'가 완성되가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 등이 추진하는 '보수통합신당'이 주된 대치 전선을 만드는 가운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끄는 '국민당'(가칭)과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의 '호남통합신당' 등이 가세하는 4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구도로 총선이 치러질 경우 이번 총선이 과거와는 어떤 면에서 달라질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통합신당의 원내 1당 싸움은 '보수통합'의 파괴력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진보 30%·중도 40%·보수 30%의 이념적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중도층은 매 선거 때마다 전략적인 투표를 해왔고, 자신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표방지 심리가 강하다.

이 때문에 보수통합신당이 중도층의 마음을 잡게 된다면 그 파괴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혁신 없는 통합'에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경우 'マイ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의식한 듯 보수 진영은 10일 보수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보수통합신당' 뛰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문 기득권 세력이 노골적으로 우리의 도전을 깎아내리고 통합을 비아냥대고 있다. 통합과 혁신의 위력을 잘 알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반드시 아름답고 정의로운 승리를 이뤄낼 것이다. 더 강한 혁신, 더 큰 통합으로 자유민주 시민께 희망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새로운보수당 책임대 표는 구도로 총선이 차려질 경우 이번 총선이 과거와는 어떤 면에서 달라질지 주목된다.

이 같은 구도로 총선이 치러질 경우 이번 총선이 과거와는 어떤 면에서 달라질지 주목된다.

표는 당 대표단 회의에서 "아무 런 변화도 없는 물리적 통합에 머무른다면 문재인 정권 심판은커녕 오히려 보수 세력의 안일함이 국민들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통합에 있어서는 변화와 개혁이 핵심이고, 이 핵심을 지켜내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신당창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보수통합에 대해 선거 승리에만 집착하는 공학적 접근이라고 비판하면서 보수통합에 대한 경계에 나섰다.

홍의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보수진영이 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래 비전과 가치보다는 오직 대통령에 대한 반대와 선거 승리에만 집착하는 공학적 접근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여전히 구태를 극복하지 못한 보수가 조금이라도 개선된 모습으로 국민 앞에 경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새로운보수당을 향해 "여러분에게 개혁보수의 길을 고집해왔던 지금까지의 행보가 결국 선거와 기득권을 추구하는 도구에 불과하며, 도로 구태보수의 품에 안기는 초라한

결말로 끝나는 것인지 그 옥색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끄는 '국민당',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의 '호남통합신당'이 펼칠 호남 선거도 관심거리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바른미래당 호남계·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다시 뭉치고 있다. 오는 14일까지 일차적인 통합 논의를 마치고 제3세력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추진하는 통합이 현실화 되면 호남 선거는 민주당·국민당·호남통합신당의 3파전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4년 전처럼 '국민의당' 돌풍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는 드물다. 민주당이 4년 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호남 지역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 지금의 현역 의원들을 대하는 호남 민심이 많아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박상병 인천대 교수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호남통합정당도 기득권을 버리지 않고 기존 인물들을 그대로 내세우면 좋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황교안·이낙연 '극한' 서민체험 낭패

정치1번지 '서울 종로 헐투를 앞두고 있는 전직 총리들이 서민 체험에 나섰다가 생각지도 않게 민낯을 드러내는 바람에 낭패를 봤다.'

제44대 국무총리를 지낸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9일 출마 지역인 서울 종로 일대를 살펴보는 길에 모교인 성균관대 인근 분식점을 찾아 떡볶이와 어묵을 주문했다. 어렵게 학교를 떠났다며 힘든 시절을 회상한 황 대표는 어묵에 간장을 바르는 봇을 보자 "이건 어떻게 (해서) 먹는거냐"며 멎춰버렸다. 또 "떡볶이를 서서 먹는 거냐"고 물으면서 어색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황 대표가 떡볶이를 찌어 먹는 꼬지를 젓가리처럼 사용해 떡볶이를 먹는 사진을 본 일부 누리꾼은 '떡볶이 처음 먹어보나'라며 혹시 표를 받기 위해 '서민 코스프레에 나서는 것 아닌지 의심했다.

제45대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역시 '어슬렁개 서민룩내를 냈다'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달 24일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 통인시장 등을



돌아봤다. 지하철 개찰구를 지날 때 이 전 총리는 교통카드를 왼쪽에 대는 바람에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이 장면 역시 사진으로 찍혀 여러 뒷말을 낳았다.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 비전위원장은 지난 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좌빵우들(페이블서 뺏은 자신의 외쪽, 물은 오른쪽)에 더불어 교통카드는 오른쪽에"라며 이 전 총리에게 친절히 조언(?)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지하철 타는 방법도 오랫동안 고위직에 있었던 이 전 총리가 몰랐을 법도 하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존경을 받아도 일반 대중의 삶과 괴리되는 시점이 발생하는 것은 애일까"라는 물음으로 이 전 총리를 아프게 꼬집었다.

뉴스1

정봉주·김의겸·문석균 쳐낸 민주당



에 공천을 신청한 100명으로, 오전부터 여의도 당사에서 면접이 진행된다. 13일까지 총 473명에 대한 면접 심사가 이뤄진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송곳 검증'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이른바 '세습 공천' 의혹 등의 논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보다는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판단한 만큼 다른 후보들에게도 보다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겠다는 분위기다.

면접 심사 청탁인 전날도 공관 위원들은 읍주운전 기록이 있거나 재산 형세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후보들에게는 구체적 해명을 요구하는 등 공천 신청자들을 상당히 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국 사태 등 여러 악재를 거치면서도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다 보니 당에서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검증이 미흡한 게 드러나면 선거가 뒤틀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뉴스1

김무성 '여수 출마' 발언에 총선 후보들 "우습나?"

여수지역 총선 후보들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여수 출마' 관련 발언에 대해 분개하며 잇따라 '여수를 육보이지 말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무성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야권 통합이 이뤄지고 당이 요구하면 광주, 여수 어느 곳이든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기명 더불어민주

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여수시을)는 10일 논평을 통해 "김무성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더니 갑자기 '여수에 출마한다'고 바람을 잡고 있다"며 "국회의 도시 여수를 그렇게 우스운가. 촛불혁명의 가운데에 있었던 여수시민들의 분노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 의원이 2012여수세계

박람회 개최과정에서 여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불출마일 수 있는 곳은 여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용주 예비후보(여수시갑·무소속)도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은 말장난으로 호남 민심을 왜곡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당장

여수로 내려와서 제대로 한판 불어보자"면서 "반드시 승리해서 내고향 여수에 적폐세력이 별도 불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주철현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여수시갑)도 "김무성 국회의원의 '광주·여수 출마' 망언은 여수시민에 대한 모독이며, 여수는 혐자가 아니라 시지가 될 것이다. 국가를 방친 부역자 김무성 의원을 위대한 여수시민 정신으로 심판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종로 출마 철회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10일 출마 의사지를 철회하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단일화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정치인부터 희생과 헌신으로 앞장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뉴스1

안철수 "진중권 교수, 진짜 민주주의자라서 존경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진 교수께서 진보주의자라서 존경하고 그 생각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전날(9일) 열린 국

민당 창당발기인 대회에서 '무너 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 이란 주제로 진행된 진 전 교수의 강연 내용을 소개하며 "실수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와 솔직함 앞에서 저는 진 전 교수를 진짜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 문제인 정권과 관련없다고 한 발언이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파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약속해주세요